



박대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서양 철학자 한 분이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서양의 역사를 통해 종교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 그 유골 무더기가 지구 몇 바퀴를 돌고 돌고 돌고 돌아...

을 가장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받는 삶의 도움이 너무 크고 좋아 감당대로 그 길에 눈길 모으고 걷다보니 전공과 직업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종교, 인간에 어떤 의미

저급한 인생에 안정된 질서와 희망, 수준 높은 삶의 체험과 성숙을 제공 하는 것이 종교의 긍정적 면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도 무방 하리라.

혼란과 불안 침잠시켜 존재 해방-성숙의 통로

나 신념들에 관대해지며,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인간과 세상에 얽힌 슬픈 일리(一理)들과 나름대로의 진리들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며, 익숙한 것들에 달라붙지 않고 낯선 것들을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 '결림 없는 마음의 태도'가 시간 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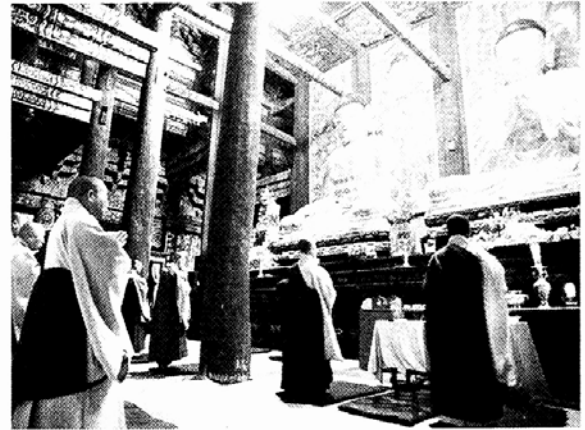
아침-저녁 예불 참불자 첫걸음

참불자의 길 예불

예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또 예불은 반드시 사찰에서만 올려야 할까. 사찰에서 아침-저녁 하루에 두 번씩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과 여려보살님들께 귀의 한다는 의미로 절을 올리며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을 예불이라고 한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불은 보통 삼보에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며 예를 드리는 '오분향례(五分香禮)'로부터 시작된다.

추고 아침-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예불을 해도 된다고 스님들은 조언한다. 맞벌이 부부와 같이 사찰에 나오기 힘든 상황의 불자들에게 가정예불을 강조하는 동종 스님(홍천사주지)은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



새벽 3시 범주사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의 모습이 장엄하다.

봉 스님은 "농악이 불교 국가들은 집을 지을 때 아예 불단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모셔 조석 예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부처님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예불 의식을 통해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는 것이 참불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는 것이 대부분 스님들의 견해다. 10여년간 집에서 아침 예불을 올리고 있다는 장호숙 보살(68)은 "집이 좁아 불단을 마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5시부터 시작되는 불교방송의 '아침예불'을 들으며 매일 예불을 올리고 있다"며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면 남들보다 하루를 더 알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 그날 하루의 생활이 즐겁다"고 말한다.



서장 통한 선 공부 20

서장 통한 선 공부 20

허사리에 대한 답서(2)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나는 그대의 도호(道號)를 담연(澹然)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물의 맑음과 같이 혼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수고로이 애를 것이 없습니다.

해아려 하는 말도 아니다. 오로지 그 미묘한 세계를 맞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묘한 말이다. '혼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출 것이니, 수고로이 애를 것이 없다'는 한 마디 말에 이미 체험의 모든 면이 잘 나타나 있다.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 느낌, 의지 등 소위 오온·십팔계의 의식 세계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구름에 가로막히지 않는 태양처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혼들림이 없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는 것이기 때문에 여여부동할 수가 없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담연을 벗어나지 않아서 텅 빌 만큼도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여부동한 '이것'이 차별 없이 평등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깨끗함과 더러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완전함과 부족함, 범부와 성인, 정법과 외도, 말과 침묵, 고요함과 시끄러움 등의 어떤 차별도 '이것'에는 없다.

'이것'이 분명하면, 아무 생각 없고 말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나 생각을 내고 말을 하는 움직임은 마음이나 모두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다. '깨어 있음과 잠자는 것이 같다(寤寐一如)'는 말도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 '이것'은 그 어떤 마음에도 구속되거나 장애되지 않으므로, "하나하나가 해탈"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김태완 부사대 강사·철학

현오 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안하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처럼 니르바나를 믿어야 바른 불교다. 다석사상으로 본 새로운 금강경 풀이. 다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은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究竟)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이 다석(多尺) 류영모(柳永模, 1890~1981)이다.